

기획세션 2-2 토론문

[3부] 서덕희(조선대학교)

“교육학에서 담론 분석의 의미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문

서덕희(조선대학교 교수)

I. 언어, 맥락, 그리고 힘

담론(discourse)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김종훈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인간의 언어와 그 맥락과의 관계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언어는 상식적인 의미의 말과 글에 한정될 수도 있지만 이미지, 옷차림, 행위, 의례 등 모든 의미구성(signifying) 과정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물을 포함하기도 한다.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는 자크 데리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은 해석의 대상인 텍스트이다. 그리고 텍스트와 자기동일성을 가진 텍스트 밖의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김상환, 2008). 텍스트의 의미는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와의 관계, 즉 상호텍스트성에 근거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그마저도 흠어지고(산포) 미루어진단(차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든지 그 의미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근대적 의미의 실재론을 부정하며 등장한 소쉬르의 구조주의와 데리다와 푸코 등의 후기구조주의에 근거한 ‘언어학적 전환(linguistic turn)’이 담론 분석 방법이 하나의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된 학문적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언어학적 전환’의 핵심은 언어가 그것을 지시하는 대상을 일대일로 반영한다고 보는 ‘반영론’을 비판한다는 데 있다. 가령, 여기서 “담론”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독자들의 머릿 속에 떠오르는 심상은 전부 같지 않다. 반영론이라면 하나의 심상이 떠올라야 하지만 다 다를 것이다. 그 떠오른 심상은 독자들이 기존에 “담론”이라는 기표와 관련하여 어떤 텍스트적 경험들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담론”과 관련하여 경험한 텍스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담론”이라는 기표의 의미가 생성된다는 말이다. 혹여 “담론”과 관련된 이 전의 텍스트적 경험들이 나와 독자들 간에 상당히 유사하다면 우리는 비슷한 심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우리는 유사한 언어 놀이 속에 살아와 비슷한 의미구성을 한 셈이 된다. 소위 “코드가 맞아야” 서로 말이 통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그 점에서 담론 분석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내가 목하 관심을 두고 있는 텍스트, 혹은 텍스트들이

어떤 언어 놀이의 일부인가를 밝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담론 분석에서 “맥락(context)”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김종훈교수가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문제는 언어 놀이로서 맥락(context)이 다차원적이라는 점이다. 아주 미시적으로는, 구체적인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휘, 대명사, 문법, 연결어, 문체 등이 등장하는 맥락을 잘 살펴야 한다. 가령, 내가 ‘교실붕괴’에 관한 신문기사 분석(서덕희, 2003)에서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분석할 때 학교라는 건축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헤드라인 이하의 본문을 확인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어휘를 포함한 구체적인 텍스트는 통시적인 맥락인 상호텍스트적 관계 속에서 볼 때에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교육학의 주요 개념을 연구한다고 할 때 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 개념이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상호텍스트성 속에서 어떤 연속성과 단절성을 나타내는지를 의미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푸코의 담론 이론에 영향을 받은 비판적 담론 분석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밝혀진 특정 담론의 연속성과 단절성, 혹은 특정 담론의 질서가 왜 하필 특정 시기, 특정 사회를 맥락으로 하여 나타났는지를 묻는 것이다. 소위 공시적·거시적 맥락에서 그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포함하여 상호텍스트적으로 관계망을 이루고 있는 어떤 담론적 질서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푸코(1972)는 일찍이 지식과 힘(권력)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특정 주체(국가나 시장 등을 포함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지식, 즉 의미화 과정을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억압적인 힘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힘을 발휘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2019)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 농촌교육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적정 규모 학교” 담론이 학교규모의 교육성에 실질적인 관심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라는 일관된 담론의 질서 속에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힘의 발휘였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언어는 어떤 의미를 반영 혹은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언어의 의미는 언어라는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효과이다. 내가 목마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물”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물을 달라는 명령이며 그 말을 이해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준다면 그것이 그 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놀이론, 언어행위론은 현실을 구성하는 언어의 힘을 잘 보여준다. 지식과 권력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푸코의 담론 이론은 바로 이런 언어행위론과 유관하다. 언어를 매개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 달리 담론 분석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언

어가 맥락 속에서 물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그 힘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려는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달려 있다. 만약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담론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연구물들은 기존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이나 문헌 검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II. 몇 가지 함께 고민할 꺼리

1. 담론분석의 인식론과 존재론적 토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담론분석은 언어학적 전환과 더불어 사회과학계에 자리를 잡았다. “텍스트 바깥은 없다”며 텍스트가 지시하는 실재를 해체하고자 하는 데리다의 관점이나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초점을 둔 푸코의 관점은 모두 지식의 객관성, 절대성, 보편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던적 관점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담론분석은 김종훈교수가 지적한 바대로 인식론적 관점에서 ‘해석주의’ 혹은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 혹은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과 그 사회적 구성에 작동하는 힘이나 인과 기제가 실재한다고 보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즉, 사회적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측면일 뿐, 실재론적 존재론과 양립 가능하다. 담론 분석에서도 핵심은 언어에서 기표와 기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표가 기표들의 관계 망(언어놀이)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했을 뿐 그 언어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푸코의 ‘힘’ 개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니체의 ‘힘’은 실재하는 것이다(손경민, 2015).

특히 영국의 로이 바스카(Roy Bhaskar)와 마가렛 아처(Margarett Archer) 등 비판적 실재론에 근거하여 사회과학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영국의 대표적 비판적 담론 분석 연구자인 페어클로(Fairclough, Jessop, & Sayer, 2002)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근에는 아처의 형태생성이론(Morphogenetic theory)에 근거하여 비판적 담론 분석의 주요 이론적 틀을 정교화하려는 움직임도 발견되고 있다(Newman, 2020). 바스카 역시 문화적 구조나 사회적 구조 등의 사회적 실재는 인간의 개념에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수용한다. 그러나 비판적 실재론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실재를 상정함으로써 과학을 통해 드러내려는 실재 혹은 인과적 힘을 발휘하는 구조와 그 기제를 드러내려는 실질적 노력이 가능하게 되고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 역시 횡적인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종적인 우열이 가능해진다.

김종훈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정해놓은 답에 맞는 텍스트를 선별적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서의 담론 분석은 많은 텍스트들을 상대로 분석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질척이는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에야 비로소 아주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텍스트적 실천들의 연속이 어떻게 거대한 사회문화적 구조를 재생산하기도 혹은 변화시키기도 하는 실천들이 되는가를 설명하게 되었을 때 그 해방감은 그 모든 노고를 잊게 한다. 동시에 사회문화적 구조의 변화를 위해 교육다운 교육을 지향하는 연구자가 어떤 텍스트적 실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도 직면하게 한다.

2. 언어의 반영론을 넘어서

김종훈교수는 2쪽에서 해외의 다양한 담론연구자들의 담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후 “담론은 일상적인 대화나 담화의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에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형성된 견해이나 입장을 일컫는 것으로,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다”고 정의 내린다. 토론자로서 궁금한 것은 앞서 어떤 정의에서도 광범위하게 형성된 “견해나 입장” 혹은 “생각”을 “담론”으로 규정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훈교수는 담론을 어떤 주제에 관해 집합적이거나 공동체적으로 형성된 “견해나 입장”으로 본다고 정의내린 것이다. 물론 견해나 입장이 언어로 표현되어 진술된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진술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념 규정을 고수한 이유가 궁금하다.

얼핏 보면, 어떤 주제에 관해 집합적이고 공동체적으로 공유된 진술들이 특정 견해나 입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적 진술이 바로 어떤 생각이나 견해, 입장을 반영하거나 지시한다는 생각은 언어를 발화자의 의도, 즉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는 ‘반영론’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는 하나의 의미를 지시하는 ‘반영’ 혹은 ‘재현’의 도구가 아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에 인과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의미는 그것이 맥락(텍스트적, 상호텍스트적,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힘을 발휘하여 현실에 발생한 효과, 즉 생성 혹은 발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담론 분석의 관점에 적합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김종훈교수가 여러 차례 표현한 “텍스트는 특정 현상이나 주제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재현(representation)한다”는 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3. 담론분석의 다양한 유형들

김종훈교수는 담론분석이 공통점이 있지만 텍스트와 맥락에 대한 관점과 분석의 초점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두는 방법에는 구조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사회적 언어 분석’ (social linguistic analysis)과 비판적 접근에 근거한 ‘비판적 언어 분석’ (critical linguistic analysis)이 있으며,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에 관심을 두되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해석적 구조주의’ (interpretive structuralism)와 비판적 접근에 기초한 ‘비판적 담론 분석’ (critical discourse analysis)” 이 그것이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Gee의 분석방법과 Fairclough의 분석 방법이 이 네 유형 중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명시해주는 것도 독자 입장에서 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두 유형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히 설명해준다면 다양한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담론분석 유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환. (2008). 데리다의 텍스트. **철학사상**, 1(27): 91-121.
-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 손경민. (2015). 니체철학에서 실재의 문제.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Fairclough, N., B. Jessop, and A. Sayer. (2002). “Critical Realism and Semiosis.” *Alethia*, 5(1): 2-10.
- Foucault, M. (1972). *The birth of the clinic*. London: Tavistock.
- Newman, J. (2020). Critical realis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morphogenetic approach. *Journal of Critical Realism*, 19(5), 433-455.